

# ‘아시아’의 발명 -19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되었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범위는 굉장히 애매하다. 오늘날 일본인에게 있어서 아마도 ‘아시아’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 중국을 지나 어딘가까지 확대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 말하는 ‘중동’이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인에게 있어서 시베리아가 ‘아시아’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다. 역으로 시점을 지구 반대편, 즉 서유럽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흔히 보스포루스 해협이 언급되지만, 터키 중간에 선을 긋는 것이 타당할까. 또 러시아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하나의 대륙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분할하는 것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한편, 중국에서는 종종 자신을 ‘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한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두면 그 외부는 모두 등가(等價) 존재가 되고 그러면 지구를 리전(region)으로 분할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에서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조직도 자주 보인다. 북미 연구자들이 조직하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라든지, 아시아에 산다고 자인(自認)하는 운동선수들이 조직하는 ‘아시아 대회’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어디가 ‘아시아’에 속하고, 어디가 속하지 않는가는 항상 애매하고 그 외부와의 경계는 화자의 관심이 무엇인지, 청중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입각지점에 따라 자주 변화한다.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아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리전’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를 개관(概觀)한다. 요지를 먼저 제시해 두자면, 그것은 1880년 무렵 일본에서 발명했다. ‘아시아’는 원래 유럽인이 그들의 거주지역 동쪽에 펼쳐지는 넓고 아득한 공간을 가르키며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였다. 다음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속있는 지역개념, 즉 외부와의 차별을 강조하고 또 어떠한 공통성 혹은 내부연관, 나아가서 연대성을 나타내는 단어로써 쓰이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스케치 해나갈 것이다<sup>1</sup>.

## 1. 동아시아 세계로의 ‘아시아’ 개념의 도입

유럽의 영향이 세계를 석권한 ‘근대’ 이전에는 지구상에는 적어도 네 개의 ‘세계’가 있었다. 중국적인 세계, 인도 세계, 이슬람 세계, 기독교 세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절은 후대의

관찰자에 의한 것인데, 각각 내부에서 전근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보고, 그 외부 세계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시아’라는 말도 이러한 세계관의 일종이다. 중세후기 유럽의 기독교 교도들은 지구세계를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의 세 지역으로 분할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아시아’는 유럽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그 외’ 토지 중에 동쪽에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그것이 나타내는 지역에는 유럽과는 다른, 공유된 종교나 특징이 없고 내부의 연관도 빈약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여러 국가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적어도 다섯 가지의 세계 종교가 있었다.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였다. 이렇듯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거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었다.

이 말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도입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利瑪竇)가 1602년에 북경에서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를 간행했을 때였다. 그는 ‘아시아(亞細亞)’라는 문자를 북시베리아에서 말레이반도에 걸쳐서 사용했지만, 그 설명은 지리적 범위의 주역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일본인은 이 세계지도를 들여왔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아시아’라는 지리명칭을 자신들의 저작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세계지리서를 저술할 때, ‘아시아’라는 이름의 장을 두었지만 거기에서는 각 나라의 지지(地誌)를 열거하는 데에 그쳤다<sup>2</sup>. 중국에서도 같은 사정이지 않았을까 한다.

당시 유럽인은 동방 지역에 대해서 다른 명칭도 병용하고 있었다. ‘오리엔트’, ‘인도’ 그리고 ‘타타르’이다. 그 중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땅’이라는 의미로서 고대 로마인이 ‘옥시덴트’, 즉 ‘해가 지는 땅’의 대조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빈약한 이름이었다. 이에 반해 다른 두 개는 좀더 내용이 깊은 것이었다. ‘인도’는 대부분 주민들이 성서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 ‘인도’는 동서로 나뉘었다.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구를 이분(二分)하여 ‘동인도’와 ‘서인도’라고 부르며 둘 다 기독교인이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했다. 그 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구미의 여러 나라들은 ‘동인도 회사’나 ‘동인도 함대’ 등, ‘동인도’라는 명칭을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사용했다.

한편, 타타르(韃靼)는 유럽인에게 있어서 예전의 몽골 정복을 상기시키는 무서운 이름이었다. 유럽인은 만주족인 청나라에 ‘타타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야만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sup>3</sup>.

중국인과 일본인은 ‘동인도’라는 서양의 지리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전부터 ‘인도’(천축:天竺)를 다른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고 불교가 태어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를 그 일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타르’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청나라는 이것을 종족이라고 파악해 스스로를 ‘타타르’의 일원으로 생각했는데, 인구의 다수인 한족은 스스로를 북방의 만족(蠻族)과는 차별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스스로를 ‘타타르’의 일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리명으로서의 중국 본부 북쪽에 위치하고 몽골족이나 만주족, 그리고 그 외의 종족이 사는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과 일본인은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명으로서 ‘동인도(東印度)’나 ‘타타르(韃靼)’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내용이 희박한 ‘아시아(亞細亞)’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현재 ‘동양’이라고 번역되고 ‘아시아’와 거의 동일시되는 ‘오리엔트’에 대해서는 복잡한 역사가 있다.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에는 ‘동양’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오리엔트’가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에서의 용법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 근처 바다에 ‘소동양(小東洋)’, 멕시코 근처 바다에 ‘대동양(大東洋)’이 있다. 같은 식으로 페르시아 남쪽에 ‘소서양(小西洋)’, 포르투갈 근처 바다에 ‘대서양(大西洋)’의 문자가 보인다. 그의 세계지도에서 ‘동양’은 글자 그대로 ‘동쪽에 있는 대양(大洋)’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양’이 ‘옥시덴트’의 번역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리치의 선교사 후배인 줄리오 알레니(艾儒略)는 리치의 지도에 대한 지지(地誌)의 주역서 『직방외기(職方外記)』(1623년 간행)에서 ‘서양’을 해양으로서가 아니라 ‘서방’ 혹은 ‘옥시덴트’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책에는 그 짝인 ‘동양’은 없다.

일본인도 이 용법을 받아들였다. 18세기 초기 유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쇼군(將軍)으로부터 일본에 잠입한 선교사의 심문을 명령받아 그 양상을 쓴 책에 『서양기문(西洋紀聞)』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 책에도 역시 ‘오리엔트’의 번역으로서 ‘동양’은 없다. 이러한 용법은 1802년에 야무무라 사이스케(山村才助)가 아라이의 저서에 대해 풍부한 난학(蘭學)지식에 기초해서 저술한 『정정증역 채람이언(訂正增訳 采覧異言)』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의 등장 이래, 100년 가까이 이러한 불균등한 용법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중국에서도 같았을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주민은 유럽인이 만들어 낸 각종 지역명칭 중에 17세기 이후 내용이 부족한 ‘아시아’와 ‘서양’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리엔트’에 대응하는 말은 중국에서 ‘서양’이 등장한 후에도 200년 가까이 출현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19세기 중엽까지 ‘아시아’라는 지역명칭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 2. ‘아시아’ 개념의 실질화: 지정학적 용법으로의 전환

원래 공허했던 ‘아시아’는 1880년, 류큐(琉球)를 둘러싼 중일간의 위기 속에서 일본인에 의해 서양에 대한 공통이해를 갖는 지역이라는 말로 재발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메이지유신 직후에 일어났다. 1870년대 초기 일본에서는 신문이 간행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무역정보와 함께 국제관계에 관한 기사도 실리기 시작한다. 이를 통해

일본인은 서양의 세계제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웃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서양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국이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긴 국경선 전역에서 터키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영토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의 원천은 상해나 요코하마 등 개항지에서 간행되었던 영국신문이었다. 영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그레이트 게임’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신문을 통해, 아시아 주민이 공통적으로 서양의 압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초에는 자신들의 고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극복수단을 자신들의 서양화(化)에 서 구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에는 서양의 침략을 막고 그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 연대를 주장하는 입장도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 직후인 1880년에 나타났다. 류큐병합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낳았고, 그로 인해 쌍방에게 전쟁회피의 노력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양국은 류큐에서 조선으로 관심을 옮기게 되었고, 러시아를 공통의 잠재적인 적으로 끌어들이으로써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던 것이다.

류큐에는 14세기에 통일왕조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당초부터 명나라와 조공·책봉관계를 맺고 있었다<sup>4</sup>. 그리고 17세기 초기에는 일본의 다이묘(大名)인 사쓰마(薩摩) 시마즈가(島津家)의 침공을 받아 그 지배하에 놓였다. 그 결과, 슈리(首里)의 류큐정부는 중국의 명·청왕조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하(那覇)에 체류하는 사쓰마 관리의 철주(掣肘)도 받았다. 이른바 ‘이중조공체제’ 안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신으로 인해 생겨난 일본정부는 다이묘국가를 폐지하고 중앙집권국가를 만들고, 그 후 류큐도 역시 서양 국제법의 ‘주권’ 원칙에 준거하는 배타적인 영토로서 바꾸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청나라는 ‘오랑캐(夷狄)’에 의한 ‘번속(藩屬)’국의 병합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1879년 류큐를 병합해서 ‘오키나와현’으로 바꿨다. 청나라는 강하게 항의를 반복했고 중국신문에는 전쟁을 주장하는 입장도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양국은 둘 다 전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일본은 서남내란(西南内乱)이 수습된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었고 정부재정도 부채와 세금수입 저하로 고생을 겪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신장(新疆)에서 발생한 야쿵벵의 독립운동은 진압되었지만 이리(伊犁)에서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청나라 내부에는 보다 중요한 조공국이었던 조선을 잃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류큐를 둘러싸고 발생한 적의를 완화하고 어떻게든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 방법은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민간차원에서는 양국의 신문이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仮想敵)으로 보고 ‘백인’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동문동종(同文同種)’을 기초로 해서 양국 국민이 단결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동경에서는 1880년에 소네 토시토라(曾根俊虎)가 ‘흥아회(興亞會)’를 설립하고 한중일 삼국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교역을 추진할 것을 제창하면서 한문으로 된 잡지를 발행했으며 상해에

학교를 설립했다. 이른바 ‘아시아주의’, 서양에 대한 대항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연대 주장과 운동이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sup>5</sup>.

한편 정부차원에서는 류큐문제를 보류하고 조선으로 초점을 옮겨서 거기에서 협력체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으로 보고 러시아의 조선진출을 막기 위해, 조선에 ‘자강(自強)’을 권하고 이를 청나라가 지도하고 일본이 지지하겠다는 아이디어였다. 1880년, 재동경청국공사관의 황준씨엔(黃遵憲)은 허루장(何如璋) 공사의 지시를 받아 『조선책략』을 저술했는데 때마침 일본에 와 있던 수신사 김홍집에게 그것을 주었다<sup>6</sup>. 그 내용은 조선에게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 즉 ‘종주(宗主)’인 중국과 종전보다 더 관계를 심화시키고 일본과 제휴하며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과의 외교관계를 맺자고 권하는 것이었다. 김홍집은 이것을 국왕에게 봉정했고, 고종은 이를 채용해서 실행에 옮겼다. 1882년, 조선은 리홍장(李鴻章)의 중개로 미국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세계정치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게 되었다. 일본 측은 이 움직임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으나 사실 이 아이디어는 원래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가 허루장에게 제안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묵인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가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조미조약이 체결된 해에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정부는 재한성주재관인 마젠중(馬建忠)의 조언을 받아들여 청나라에게 개입을 요청해서 이를 전복시켰다<sup>7</sup>. 또 2년 뒤에는 조선의 급진개혁파가 일본공사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청나라에게 기대는 정부에 반대하여 구테타를 시도했지만 청나라군에 의해 진압됐다. 이때 일본 측은 공사가 습격당했으며 민간인 44명이 살해당했다. 그러나 삼국 정부는 분쟁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힘써서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하고 청나라와 일본은 조약을 체결해 서로의 군대를 조선반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정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에 의한 조선지배가 강화되었다. 특히 한성에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재하게 되면서 조선정부는 이전에 ‘속국’이면서 ‘자주’였던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sup>8</sup>.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정책을 펼쳤다. 당시 일본은 군사력도 없었고 경제도 불황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입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러시아를 제외한 열강, 즉 영국, 미국, 청나라와 제휴하여 조선반도를 중립화함으로써 청나라와 러시아의 세력신장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조선불개입정책(朝鮮不介入政策)은 1894년 청일전쟁 때 포기하게 된다. 일본은 군사력을 써서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세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 것을 선택한 것이다. 1890년 육군 창시자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은 내각 내에서 조선반도 중립화정책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에 대외정책의 틀이 바뀌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전에 1880년 대에는 프랑스의 베트남 침공과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같은 서양 진출로 인한 소동이 있기는 했지만, 동북아시아 삼국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일본정부는 강병(強兵)정책이 성공하기 전에는 온화한 정책을 취했고, 청나라도 이웃나라와의 대립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안정이기는 하나 1880 년 대의 동아시아 삼국은 서양의 동향을 의식하면서 국제관계 조정에 힘써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sup>9</sup>.

### 3. 20 세기에 대한 전망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책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할취(割取)하고 식민지제국으로 변화했다. 1873 년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와 오오쿠보 도시미쓰(大久保利通)가 정한(征韓)론을 물리쳤던 것은 일본이 조선반도에 손을 댈 경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간섭을 막을 만한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후로 약 20 년이 지난 일본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해외파병을 위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다져져 있었다. 경제환경의 변화가 외교정책을 수세(守勢)로부터 공세(攻勢)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한편 중일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제창되었던 아시아주의는 그 후에도 이류의 지위에 멈춰 있었다. 청일전쟁 후에 중국 동북지방과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대립이 깊어지게 되자 일본과 중국에서는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하는 청일동맹론이 제창되었고 정치적으로 추구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후 일본은 서양열강과 호각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정책의 주류로 하여, 아시아 연대는 서양을 싫어하는 소수자의 주장에 머물렀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아시아’ 단위의 정치적 사고는 넓게 퍼지지 않았다. 쑨원(孫文)은 예외적 존재였다. 그는 1924 년에 고베에서 ‘대아시아 주의’를 주장했는데, 그것은 일본인의 제국주의 지향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인이 좋아하는 아시아 연대관(觀)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일본인이 상상하는 아시아는 서방으로까지 확대되어, 원래 서양인이 상정했던 아시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후, 중동의 무슬림이 일본과의 협력·이용을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는데, 이들과 접촉한 산스크리트 연구자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는 그의 관심을 이슬람교에까지 확대시켜 『부흥기 아시아의 제 문제』(1922 년) 등, 무슬림을 포함한 아시아 부흥을 주장하는 저서를 지었다. 다만, 그는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조선이나 중국 등 일본제국주의의 대상이었던 지역은 무시했다. 이러한 ‘아시아’의 서방확대에 따라 일본인이 원래 상상했던 ‘아시아’는 종종 ‘동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본은 1931 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다시 팽창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스스로를 ‘아시아’의 맹주로 설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했다. 만주국에서 ‘협화회(協和會)’를 만들어 ‘오족협화’의 정점에 일본민족을 두었던 것이 그 처음인데, 구미 각국을 상대로 세계전쟁을 시작한 후에 1943 년에 동경에서 ‘대동아회의’를 연 것이 그 정점이었다. 여기에는 서양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가들이 모였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수마스 찬드라 보스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방문한 것은 소련과 나치 독일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후였다. 서양 대신에 일본의 세력하에 들어가는 것은 보류하지만 영국의 적대세력은 무엇이든지 이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sup>10</sup>.

제 2 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일본인은 아시아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철수했고, 국내에서는 미군 점령하에 다시 서양화에 의한 개혁이 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냉전으로 인해 동아시아가 분단되었던 것도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게 되었다. 아시아주의는 후경으로 물러갔지만 미군 점령하의 강제적인 서양화로 인한 굴욕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sup>11</sup>.

## 맺음말

오늘날 21 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중마찰도 이러한 미래 예상에 기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동아시아’는 20 세기의 ‘일본의 세기’를 지나 다시금 19 세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재현을 바라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유럽과 달리 국가들의 사이즈에는 큰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등한 질서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20 세기의 일본과 같이 중국은 맹주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인가.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 유럽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번 강연에서는 19 세기의 변화, 즉 동아시아에서 리저널한 상상력이 탄생하고 일본이 전통적인 중화세계상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한 것을 개관하고, 나아가 20 세기 전반에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한 경위에도 언급했다. 이번 참가자들이 다루는 테마는,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등인데, 직접적으로 이러한 파워밸런스나 질서의 전환에 대해 다루는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연결되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같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식해 썼으면 한다. 좋은 발표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자의 발표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문제의식과의 관련에서 생각하고 또 논의에 참가해 썼으면 한다. 이는 자기자신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국경 너머에 매우 소중한 학우를 발견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sup>1</sup> 본고의 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三谷博 「『アジア』概念の受容と変容」, 林忠錫・渡辺浩編 『韓国・日本・「西洋」』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5년. 이하 주에서는 이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헌을 인용.

<sup>2</sup> 新井白石 『采覽異言』 18세기 초.

- 
- <sup>3</sup> 馮明珠編 『経緯天下』 国立故宫博物院, 民国 94 年 (2005 年) .
- <sup>4</sup> 赤嶺守 『琉球王国：東アジアのコーナーストーン』 講談社, 2004 年. 村井章介・三谷博編 『琉球からみた世界史』 山川出版社, 2011 年.
- <sup>5</sup> 並木頼寿 「明治初期の興亜論と曾根俊虎について」, 同著 『近現代の日中関係を問う』 研文出版, 2012 年.
- <sup>6</sup> 平野健一郎 「黄遵憲 『朝鮮策略』 異本校合一近代初頭東アジア国際政治における三つの文化の交錯について」 日本国際政治学会 『国際政治』 129 号, 2002 年.
- <sup>7</sup> 岡本隆司 『馬建忠の中国近代』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年.
- <sup>8</sup> Owen Nickerson Denny, *China and Korea* (Seoul, 1888). Denny was an American Adviser of Korea, 1886-1890. 岡本隆司校訂・訳注 『ON.デニー「清韓論」』 東北アジア文献研究会 (横浜: 成文社), 2010 年. 일반적으로, 岡本隆司 『属国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関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04 年.
- <sup>9</sup> 三谷博・並木頼寿. 月脚達彦編 『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 世紀編』 東京大学出版会, 2009 年.
- <sup>10</sup> 長崎暢子 『インド独立 逆光の中のチャンドラ・ボース』 朝日新聞社, 1989 年.
- <sup>11</sup> 최근에 아시아 각지의 아시아주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향후의 연구는 이를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松浦正孝編 『アジア主義は何を語るのか』 ミネルヴァ書房, 2013 年.